



스위스 탐구 생활: 발레(Valais) 지역.

요런 재미도 있다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좀 더 특별한 체험 가능한 여행법

알프스식 짜릿한 미끄럼틀 타고, 산길 따라 스쿠터 타고

알프스 물에 발 담그고 크나이프 체험하고

하이킹 안 해도 알레취 빙하 볼 수 있는 방법

빙하에 소원과 근심걱정 남기고 오는 방법

알프스 정통 노천 스파하고 산장에서 별밤 보내고

마터호른 펼쳐지는 5성급 파노라마에서 미식 체험하고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순위가 바로 여행이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두 번째 지역으로 발레 지역을 소개한다.

1. 사스페(Saas-Fee)

사스(Saas) 계곡에 자리한 알프스 산골 마을, 사스페는 ‘알프스의 진주’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13 개의 4,000 미터급의 봉우리에 둘러싸인 빙하 마을 사스페는 해발 1,800 미터에 있다. 세계 여러 나라 스노보드 국가대표팀이 전지 훈련을 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만큼, 겨울에는 스키와 보드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다. 꼭 스키나 보드를 즐기지 않더라도, 사스페를 찾아볼 이유는 차고 넘친다. 로맨틱한 샬레 마을에는 허니문예 꼭 맞는 샬레 호텔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 스파 시설도 호텔마다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허니문으로도 인기 좋은 목적지다. 여름이면 사스 계곡이 품은 자연의 품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다채롭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즐겨볼 만한 몇 가지 액티비티를 소개한다.

1) 페블리츠 터보건 런(Feeblitz toboggan run)

혼자서 혹은 두 명이 탈 수 있는 페블리츠 터보건 런은 흔히 알려진 ‘알파인 코스터’다. 가파른 터보건 리프트를 타고 트랙 출발 지점으로 편리하게 이동한 뒤, 최고 시속 40km 나 되는 속도로 스릴 넘치게 트랙을 내려오게 된다. 어린아이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며, 연중 운영된다.

시기에 따라 오전에 운행하기도 하고, 오후 1 시부터 운행하기도 하며, 겨울 시즌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한정 운행하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1 회 탑승권은 CHF 7, 10 회권은 CHF 63 이다.

2) 스쿠터 바이크

하나도, 둘도 아닌 세 개나 되는 스쿠터 트랙이 마련되어 있는 사스페에서 바퀴가 튼튼한 스쿠터로 스피디하게 하강 질주하며 액션을 즐길 수 있다. 푸르그슈탈덴(Furggalden)에서 사스 알마겔(Saas-Almagell)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3.5km 길이의 포장도로로, 널찍하기까지 해서 스쿠터 타기가 무척 쉽다. 한니그(Hannig)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5.5km 에 달하는 자연 그대로의 트랙으로 감탄스러운



풍경을 따라 사스페까지 이어진다. 산정호수인 크로이츠보덴(Kreuzboden)에서 시작되는 11km의 트랙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다운힐 코스로 더트 스쿠터(dirt scooters)를 타고 사스그룬트(Saas-Grund)까지 질주할 수 있다.

운행 시기 및 시간은 케이블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용료는 푸르그슈탈덴 출발 트랙은 CHF 6, 한니그 출발 트랙은 CHF 10, 크로이츠보덴 출발 트랙은 CHF 19다.

3) 알프스 정통 크나이프(Kneipp)

사스페의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크나이프 시설(물장구 놀이터, 워터 스트림, 팔 담그는 탕, 족욕, 그리고 조용한 휴식 지역 등)을 체험하며, 옛 수도사들이 그랬듯 영혼과 신체를 맑게 수련해 볼 수 있다.

크나이프는 19세기 독일의 세바스찬 크나이프(F. S. Kneipp, 1821~1897) 신부가 주장한 물 치료법(물요법)으로, 2015년 독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도 했다.

알프스의 진주답게, 4,000m 봉우리 사이에 자리해 있는 만큼, 빙하, 산, 개천에서 물이 사스 계곡으로 흘러든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덕분에 예로부터 사스페는 알프스 웰니스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해왔다. 사스페에 마련된 비피그(Bifig) 크나이프 시설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며 알프스 정통 크나이프를 체험해 볼 수 있다.

4) 사스페 필수 팁! 사스탈카드(SaastalCard)

사스페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사스탈카드다.

특히 여름에 사스페로의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는 일등 공신이다. 사스페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면 체크인 할 때, 사스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메트로 알핀(Metro Alpin)을 제외한 9개의 모든 산악 교통을 심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스 계곡에서 운행하는 모든 포스트버스도 포함된다. 단, 사스페에 도착할 때와 사스페를 떠날 때 이용하는 포스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36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고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위에 열거된 액티비티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박 당 성인 CHF 7, 만 6-15세 CHF 3.5, 만 5세 이하 무료인 사스탈 카드는 숙박 업체의 규정에 따라 무료 혹은 최대 1박 CHF 3.80까지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

2. 알레취 아레나(Aletsch Arena) 지역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프스 최장의 빙하, 알레취 빙하(Aletschglacier)를 품고 있는 지역이 알레취 아레나다. 총 22.6km 길이의 빙하가 81.7 km²의 면적에 뻗어나 있다. 빙하의 신비로움이 감도는 알프스 산골짜기에서 눈 앞에 펼쳐진 빙하 줄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에서 있지 않은 듯한 기분에 빠지고 만다. 고요 속에서 빙하를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대단한 전망대가 몇 군데 있는데, 보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하이킹을 나서지 않고, 좀 더 쉽게 이런 전망대에 올라 빙하 체험을 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알레취 빙하는 물론, 주변으로 펼쳐진 4,000m급 봉우리, 그중에서도 한눈에 쏙 들어오는 마터호른(Matterhorn)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중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네 군데가 있다. 바로, 모오스플루(Moosfluh), 호흐플루(Hohfluh), 베티머호른(Bettmerhorn),



엑기스호른(Eggishorn)이다. 전망뿐만 아니라, 이 네 지점에서는 빙하의 파노라마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모오스플루, 베티머호른, 엑기스호른 세 전망대에는 럭키 스톤(Lucky Stone)이란 것을 남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소원을 빌며 쌓는 돌탑이다. 케이블카 역이나 인포센터, 마을의 호텔에서 럭키 스톤 하나를 부탁해 자신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돌에 적고, 그 돌을 이 세 전망대에 남겨 두고 오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진다.

1) 모오스플루(Moosfluh) 및 호흐플루(Hohfluh)

해발고도 2,333m 에 자리한 모오스플루 전망대는 호흐플루(Hohfluh: 2,227m) 전망대와도 가깝다. 두 전망대 모두 알레취 빙하의 웅장한 풍경을 담백 선사한다. 2015년부터 현대적인 케이블카가 운행되어 이 두 전망대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리더알프(Riederalp) 마을 서쪽 끝에서는 호흐플루까지, 동쪽 끝에서는 모오스플루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운행된다. 각각의 케이블카 이용료는 왕복 CHF 32이며,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50% 할인된다.

2) 베티머호른(Bettmerhorn)

산에도 저마다 다른 얼굴이 있다. 신비한 빙하가 흐르는 웅장한 풍경은 베티머호른의 유일한 매력이다. 이 해발고도 2,647m 전망대에서는 스포츠, 자연, 문화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베티머알프(Bettmeralp) 마을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금세 오를 수 있는 전망대다. 원한다면 베티머호른에서 엑기스호른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7.37km의 고지대 트레일을 통해 3시간여의 하이킹을 즐길 수도 있다. 베티머알프에서 베티머호른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 왕복 요금은 CHF 32이며,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50% 할인된다.

3) 엑기스호른(Eggishorn)

엑기스호른에서는 360°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해발고도 2,869m 위에 있는 엑기스호른 전망대에서는 알레취 빙하의 전체 길이와 그 광활함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 바퀴를 빙그르 돌면 알프스의 유명한 봉우리인 마터호른(Matterhorn), 돔(Dom), 뮌히(Mönch), 아이거(Eiger), 융프라우(Jungfrau)가 펼쳐진다. 이 웅장한 파노라마의 전망대는 피쉬(Fiesch) 마을에서 케이블카로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피셔알프(Fiescheralp)에서 케이블카를 한 번 갈아타야 하지만, 아이들도 쉽게 갈아탈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접근이 용이해 누구에게나 공평한 파노라마를 선사해 주는 곳이다. 피쉬에서 엑기스호른까지 운행되는 왕복 케이블카 요금은 CHF 49이며,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50% 할인된다.

3. 로이커바트(Leukerbad)

로이커바트(Leukerbad) 온천은 과거 로마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웰빙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발레 계곡 옆에 온천 리조트가 자리하고 있다. 로이커바트 산악 스파 리조트에 위치한 65개의 온천에서는 매일 390만 리터의 물이 솟아 나온다. 온천은 로이커바트의 관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큰 스파, 웰빙 리조트 중의 하나로 거듭나게 했다. 겨울철의 스키, 여름철의 하이킹 등 각종 스포츠 활동을 마친 후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실제로 로이커바트에 가보면 스위스



노부부들은 물론, 젊은 커플들도 노천 스파에 몸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1) 겐미 산장, 빌트슈트루벨(Wildstrubel)

허니문으로도 이상적인 로이커바트에서 스위스 로컬에게 제일 유명한 것은 스파가 아닌, 겐미(Gemmi) 산장이다. 특히, 겐미 산장에서 하루 숙박하는 것을 최고의 체험 중 하나로 꼽는 로컬들이 많다.

로이커바트 마을 끝자락에 있는 겐미 케이블카를 타면 겐미 산 위에 있는 산장 레스토랑 및 호텔, 빌트슈트루벨에 쉽게 오를 수 있다. 당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는다면, 산장 식당에서 뢰슈티를 비롯한 스위스 전통 요리를 맛볼 것을 권한다. 창밖으로 펼쳐진 절경의 파노라마를 곁들여 훌륭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레스토랑 건물에는 야외에 설치된 전망대가 연결되어 있다. 전망대의 스틸 구조물은 가파른 바위 면에서 약 10m 위에 설치되어 있다. 격자무늬 바닥과 비스듬한 유리 벽으로 인해 지구에서 300m 상공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치 바위벽 바로 위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든다. 전망대에 서면 900m 아래로 펼쳐지는 로이커바트(Leukerbad) 지역을 감상할 수 있다.

산장 호텔에는 2인실은 물론, 3, 4, 6인실과 14인실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산장호텔에서 숙박하면 관광객들이 모두 내려간 뒤, 산장 레스토랑에 앉아 알프스의 적막과 로이커바트 마을의 불빛을 벗 삼아 정찬을 즐길 수 있다.

2) 문학가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었던 겐미 고갯길(Gemmi pass)

여름이면 겐미에서 시작하는 수많은 하이킹 코스도 스위스 로컬들에게 무척 인기다.

그 중, 로이커바트와 칸데르슈텍(Kandersteg)을 이어주는 알프스 고개, 겐미는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길이다. 겐미 고개를 넘었던 많은 작가와 예술가, 과학자들은 고개 중턱 즈음에 위치한 슈바렌바흐 인(Schwarenbach Inn)이라는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는데, 그 숙박일지를 보면 유명한 이름이 곳곳에 등장한다. 1779년의 괴테, 1873년의 쥘 베른(Jules Verne), 1933년의 피카소가 겐미 고개를 넘어 여행했으며, 마크 트웨인도 이 고개를 넘은 뒤, 그의 책, '유럽 방랑기(A Tramp Abroad)'에서 이 산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트웨인이 이 산장을 찾았을 즈음에는 이미 슈바렌바흐 인은 '도적들과 살인마들의 소굴'이라는 명성을 얻은 후였는데, 이에 영감을 받은 독일 작가, 자카리아스 베르너(Zacharias Werner)는 그의 소설 '2월 24일'에서 산장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모파상 역시 이 산장을 배경으로, '산장(The Inn)'이라는 작품에서 섬뜩한 이야기를 풀어냈고, 코난 도일은 설록 홈즈에 등장하는 배경으로 이 산장을 설정하기도 했다.

로이커바트에서 겐미 케이블카를 타고 겐미산에 오르면 겐미 고갯길이 바로 시작된다. 고개의 바로 옆에는 다우벤제(Daubensee)라는 아름다운 산정 호수가 있다. 호수의 반대편으로 하이킹 트레일이 이어지는데, 베르그호텔 슈바렌바흐(Berghotel Schwarenbach)까지 걸으며 아름다운 고갯길을 감상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어 슈피텔마테(Spittelmatte)까지 하강 선을 이어가다가 칸데르슈텍의 쉰뷔엘(Sunnbüel) 케이블카 역까지 오르막길이 이어진다. 하이킹 중 로이커바트 방향으로 돔(Dom), 마테호른, 바이 스흐른(Weisshorn) 등의 주요 봉우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간 정보

코스 길이	10km	
소요 시간		3.5 시간
난이도	중간	



고도 정보

겜미 케이블카 역(2320m) – 다우벤제(2205m) -베르그호텔 슈바렌바흐(2060m) - 슈피텔마테(1872m) –
순뷔엘 케이블카 역(1936m)

왕복 일정

출발지점까지 가는 방법: 로이커바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겜미까지 이동
돌아오는 길: 순뷔엘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칸데르슈테그까지 이동

4.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는 마터호른(Matterhorn) 발치에 자리해 있다. 마터호른으로 인해 관광 산업이 번성하게 된 알프스 산골 마을 체르마트는 자동차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스위스 자연이 품은 청정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겨울이면 스키 인파로 북적이고, 여름이면 하이커들이 모여드는 이곳에서 조금 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스위스 5성급 파노라마 속에서 호텔 정찬을 즐길 기회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호텔 식사 한번 하려면 이 비용은 들기 마련인데, 거기에 알프스 최고의 풍경이 더해지니 예산을 굳이 비교할 의미가 없긴 하다.

바로,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산 위에서의 미식 체험이다.

1) 고르너그라트 구르메 티켓(Gornergrat-Gourmetticket)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여름 시즌에는 운영하지 않게 되었지만, 겨울 시즌을 노려볼 만한 체험이다. 고르너그라트 구르메 티켓은 하이킹이나 스키 체험과 미식 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고르너그라트 산속 곳곳에 자리한 산장 식당에서 5코스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하이킹하다가, 겨울에는 스키로 산장 식당을 찾아가 정찬을 즐길 수 있다.

상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체르마트에서 기차를 타고 고르너그라트에 올라간 뒤, 리펠베르크(Riffelberg), 리펠알프(Riffelalp)를 거쳐 체르마트로 돌아오는 기차 티켓
- 고르너그라트 정상에 있는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Kulmhotel Gornergrat)에서의 칵테일과 발레 특산품으로 만든 애피타이저
- 호텔 리펠하우스(Hotel Riffelhaus)에서의 3코스 미식 코스
- 리펠알프에 있는 알피타(Alphitta) 산장 레스토랑에서의 디저트와 커피
- 로텐보덴 – 리펠베르크 구간 썰매 및 스노우슈 렌탈

이용 요금은 성인 CHF 139,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CHF 115, 만 9-16세의 어린이는 CHF 85 다.
12월에서 4월까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이용일 전날 밤까지 3100 쿨름호텔 고르너그라트로 예약하면 된다.

Tel +41 (0)27 966 64 00,
E-Mail gornergrat.kulm@zermatt.ch



2) 고르너그라트 일출 체험

체르마트의 명봉, 고르너그라트 위에서 마터호른 위로 찬란히 떠오르는 일출을 보는 것보다 더 특별한 체험이 있을까? 새벽 일찍 체르마트에서 기차를 타고 로텐보덴(Rotenboden)까지 간 뒤, 약 10 분간 걸어서 리펠제(Riffelsee) 산정 호수로 간다. 호수 위로 반사되는 새벽녘의 마터호른을 사진에 담기 완벽한 스포트이다. 하늘이 점점 붉어지며 해가 떠오르면 이보다 더한 인생샷은 넘기기 힘들다.

다시 기차를 타고 고르너그라트 정상에 올라 4,000 미터급 봉우리들이 둘러싼 풍경 속에서 쨍한 아침을 맞이한 뒤, 정상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풍성한 아침 식사와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7 월과 8 월 특정 목요일에만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성인 CHF 99, 만 6-16 세 아동은 CHF 39, 만 6 세 미만 유아는 무료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일 전날 오후 4 시까지 다음으로 예약해야 한다.

Tel +41 (0)848 642 442

E-Mail railcenter@gornergrat.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